



한국축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각급 대표팀 감독들이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모임에 함께한 정정용 U-19 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감독선임위원장, 김학범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최영준 기술발전위원장, 서효원 전임지도자 팀장(왼쪽)이 손을 맞잡고 있다.

김학범 만난 벤투 “공감대 생겼다”

각급 축구대표팀 감독 첫 회동

김판곤 위원장·연령대 국대감독 모여
연속성·접근성 유지 위한 공감대 형성
일정 중복·선수 차출 등에 협력 의사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각급 대표팀 감독들이 손을 맞잡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각급 대표팀 감독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판곤 협회 국가대표선임위원장,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 김학범 23세 이하(U-

23) 대표팀 감독, 정정용 U-19 대표팀 감독이 자리했다. 또한 최영준 기술발전위원장 대행, 서효원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도 참석했다.

국가대표팀 감독과 연령대 대표팀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을 모은 것은 벤투 감독과 김학범 감독의 만남이다. 벤투 감독이 맡고 있는 국가대표팀과 김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U-23 대표팀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U-23 대표팀은 연령대 대표팀의 종착지이자 국가대표팀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AG) 주축멤버였던 이승우(베로나), 황희찬(함부르크), 김민재(전북 현대), 황인범(아산 무궁화), 김문환(부산 아이파크) 등은 국가대표팀과 U-23대표팀에 걸쳐 있는 자원이자, 두 대표팀 일정 중복 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벤투 감독과 김 감독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시간여의 미팅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에서도 이와 비슷한 미팅을 한 적이 있다. 이번 미팅의 목적은 연속성, 접근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다. 앞으로도 각 감독들이 원하는 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좋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 별로 선수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선수 차출이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대화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투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세미나와 시상식 참가를 위해 21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팬들 의견 듣겠다” 축구협, 첫 정책간담회

연말까지 의견 취합…내년에 반영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축구의 나아갈 길을 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 축구 정책제안 간담회가 20일 서울 대치동 세텍 컨벤션홀1에서 개최됐다. 지도자, 축구관계자, 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된 주제는 대표팀 발전을 위한 제언이었다. 협회를 대표해 홍명보 전무이사,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협회는 추후 유소년분야와 제도개선분야에 대해 2,3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구팬, 지도자, 축구 관련 종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표팀 멘탈 코치 강화, 연령대별 훈련프로그램 제공, 유소년 대표팀의 선발 방식 변경과 해당 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자

대표팀 관련으로는 A매치 확대, 남자 A 대표팀 못지않은 지원, 여자축구대표팀의 저변인 여자축구 자체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협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그 밖에 한국인 지도자 육성과 활성화, 아산무궁화 축구단으로 본 군 팀 확대, 한국축구 철학에 대한 슬로건화 등 대표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대표팀을 직접 담당하는 김 위원장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주셨다.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며 “감독 임기 보장과 관련해서는 협회도 충분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연령대별 프로그램은 각급 대표팀 감독 미팅에서도 나온 얘기다. 확립화가 아닌 다양성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갈 길 바쁜 롯데…아빨싸! 손아섭 인대손상

3년연속 전 경기 출장 무산 위기

롯데 자이언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잠실 원정길에서 2승을 쟁겼다. 하지만 손실도 만만치 않다. 손아섭(30)이 당분간 이탈하게 된 것이다. 한 경기가 아쉬운 롯데로서는 뼈아픈 부상이다. 롯데는 18~19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모두 이겼다. 8연패로 가을야구가 사실상 멀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 소식이였다. 하지만 19일 경기에서 손아섭이 부상을 당했다. 손아섭은 9회 초 출루한 뒤 후속 타자의 안타 때 3루까지 향했다. 1사 1·3루에서 민병현이 희생번트를 뒀고 손아섭이 홈으로 내달렸다. 결과는 태그아웃.

손아섭은 슬라이딩 과정에서 오른 새끼손가락이 땅에 쓸리며 통증을 호소했

다. 즉시 조흥석과 교체됐고, 20일 구단 지명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MRI와 CT 촬영 결과 인대에 손상이 발견됐다. 조원우 감독은 20일 사직 KT 위즈전에 앞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대타 출장도 어렵다. 이번 주까지는 힘들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손아섭은 통증이 가라앉으면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개인에게도 타격이 큰 부상이다. 손아섭의 3년 연속 전 경기 출장 기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손아섭은 2015년 8월 15일 목동 넥센 히어로즈전부터 449연속 경기 출전 중이었다. 현역 최장 기록. 손아섭 역시 이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손아섭의 흥행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여러 모로 뼈아픈 부상이다.

사직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종합 뉴스스테이션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 홍보 박차

2018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광주광역시장)가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아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와 광주광역시청 직원 200여명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공항 등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알린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한 미디어 서비스, 광주플랫폼 등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대회 홍보판을 설치해 귀성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전국적인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청과 서울·용산역, 인천·김포·무안공항에 2.5m 높이의 대형 마스코트(수리·달이) 조형물을 설치한다.

KBO 정운찬-KBSA 김응용 회동

KBO 정운찬 총재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김응용 회장이 20일 한국야구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놓고 협의했다. 프로리그의 커미셔너인 정 총재와 아마추어 야구의 수장인 김 회장은 이날, 앞서 합의한 ‘한국야구미래협의회’를 10월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야구미래협의회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향후 국제대회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단계가 힘을 합쳐 어떻게 최상의 전력을 구축할지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KBO가 5명, KBSA가 5명씩을 추천, 총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정 총재와 김 회장은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의 상벌 및 제재에 관한 필요 업무의 일원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대표 운영시스템의 새로운 설정도 함께 논의했다.

중앙멤버스, 여행멤버스 휴인클럽 출시

VIP골프멤버스 서비스로 골퍼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앙레저그룹 중앙멤버스가 신개념 여행멤버스 서비스 휴인클럽을 출시했다. 5년 만기 반환형 상품으로 입회금 350만원 중 예치금 300만원을 만기 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회원카드로 전국 유명 여행지에서 회원가 또는 준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1박 시 이용요금 35%를 회원 계좌로 다시 돌려주는페이백서비스를 실시한다. 회원카드는 현대카드와 제휴해 체크카드로도 쓸 수 있다. 수도권 골프장 70여 곳 할인부킹서비스와 동남아 해외골프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앙레저그룹 및 제휴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골고루 누릴 수 있다. 상품 출시 기념으로 신규가입 회원에게 주중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

롯데칠성 ‘퀘이커 오츠 앤 밀크’ 선택

롯데칠성음료가 오트 전문 브랜드 퀘이커와 손잡고 귀리음료 ‘퀘이커 오츠 앤 밀크’를 출시했다. 최근 유통업계 트렌드인 가장간편식(HMR)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것에 주목해 250ml 용량의 플레인과 스위트 2종으로 구성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귀리에 우유가 더해져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바쁜 일상으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 싶을 때 식사 대용식으로 즐길 수 있다. 패키지는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쉽게 마실 수 있는 테트라 엡지 팩을 적용했다. 6월의 포장재로 구성해 외부의 빛, 습기, 세균으로부터 내용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 샘플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날씨와 생활

21일(금)			
서울	80/30	인천	80/30
	19 23		20 23
춘천	80/60	강릉	80/60
	18 22		18 21
대전	80/60	전주	60/60
	20 23		20 23
대구	70/60	울산	70/60
	19 23		19 22
창원	70/60	제주	80/30
	20 24		24 27
지역		강수 확률	최저
		(오전/오후)	최고기온
		최저	최고기온
☀ 해돋이 06:19 해질 18:31 🌙 달출 16:40 달질 02:18			

추석연휴 주요 스포츠 일정

21일(금)	프로야구 : 삼성-넥센(고척), 두산-LG(잠실), 한화-SK(인천), NC-KIA(광주), KT-롯데(사직) 이상 오후 6시30분. 테니스 : 2018년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서울 올림픽공원) 골프 : 2018 KPGA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오픈(솔라고 CC), 2018 KPGA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INVITATIONAL(88). 씨름 :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문경실내체육관, 낮 12시).
22일(토)	프로야구 : SK-넥센(고척), KT-LG(잠실), KIA-한화(대전), 롯데-삼성(대구), 두산-NC(마산) 이상 오후 2시. 프로축구 : 경남-서울(창원축구센터, 오후2시), 포항-인천(포항스틸야드, 오후2시), 상주-대구(상주시민, 오후4시). 테니스 : 2018년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서울 올림픽공원) 골프 : 2018 KPGA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오픈(솔라고 CC), 2018 KPGA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INVITATIONAL(88). 씨름 :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문경실내체육관, 오전11시30분)
23일(일)	프로야구 : SK-넥센(고척), KT-LG(잠실), KIA-한화(대전), 롯데-삼성(대구), 두산-NC(마산) 이상 오후 2시. 프로축구 : 제주-강원(제주W, 오후2시), 수원-전북(수원W, 오후4시), 전남-울산(광양전용, 오후4시). 테니스 : 2018년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서울 올림픽공원) 골프 : 2018 KPGA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오픈(솔라고 CC), 2018 KPGA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INVITATIONAL(88). 씨름 :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문경실내체육관, 낮 12시30분)
24일(월)	씨름 :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문경실내체육관, 오전11시30분)
25일(화)	프로야구 : 넥센-두산(잠실), LG-SK(인천), 삼성-한화(대전), NC-롯데(사직), KIA-KT(수원) 이상 오후2시. 씨름 :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문경실내체육관, 오전11시)
26일(수)	프로야구 : 넥센-두산(잠실), LG-SK(인천), 삼성-한화(대전), NC-롯데(사직), KIA-KT(수원) 이상 오후2시. 프로축구 : 강원-수원(춘천송암, 오후2시), 상주-포항(상주시민, 오후2시), 대구-경남(대구스타디움, 오후2시), 울산-제주(울산문수, 오후3시), 서울-인천(서울W, 오후4시), 전북-전남(전주W, 오후4시). 씨름 :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문경실내체육관, 낮 12시)

히말라야 만나푸르나 가을 트레킹 떠나자!

푼힐·좁숨·카그베나·목티나트·카트만두

10월26일~11월4일(10일)

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 2020 0114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연	편집부장	좌혜경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부장	김도현
편집국장	연재호	엔터테인먼트부장	김원경
광고국장	이승욱	경제부장	김재범
인쇄	동아일보사	뉴미디어전략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